

### '혁명과 평화' ...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 평화의 메시지, 전 세계로 발신

정읍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연대회의에 참여한 도시는 정읍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중심도시 코크(Cork), 독일농민전쟁의 중심지 뮐하우젠(Mühlhausen), 체 게바라의 고향이 있는 아르헨티나의 알타그라시아(Alta Gracia), 필리핀의 국부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고향인 칼라바(Calamba) 등 5개 도시다.

올해 연대회의의 주제는 '혁명과 평화'였다. 참가 도시들은 모두 근대 전환기의 농민혁명이 정의와 평등,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시작됐다면, 지금의 혁명정신은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적 환경과 생태 회복, 불평등 격차 해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연대회의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뜻을 모아 황토현 전적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군상(불멸 바람길)'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학수 시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동학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며 "비록 나라와 도시가 다르지만, 다시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 전쟁과 탐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의 첫날인 9일에는 시청에서 참가 도시들과의 릴레이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키아란 맥카시 시장이 직접 참석한 코크시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도시 간 공식협약'을 맺었고, 뮐하우젠과는 내년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지난 9~11일 정읍에서 열렸다. 사진은 11일 연대회의의 참석자들이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쟁 · 기아 · 환경파괴에 대한 시민운동 촉구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의해 공식화 방안 모색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리마 시장이 참석한 알타그라시아는 정읍 시 대표단 방문을 요청받았고 올해 처음 참여한 칼라바시에는 이학수 시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향후 도시 간 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10일 오전에는 해외 참가자들과 국내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제주 4·3과 광주 5·18 등 동아시아 민주평화 인권네트워크의 대표들이 참석해 동학농민군상 앞에서 헌화와 참배를 하고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의 기초강연을 들었다.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컨퍼런스에서는 정읍을 비롯해 4개 도시가

발표에 나섰다.

정읍을 대표한 일광대학교 조성환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의 공동체성을 사상적으로 정리했고, 뮐하우젠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 코크시는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필리핀의 르네 에스칼라테 교수는 필리핀 농민투쟁의 양상과 호세 리잘에 대해서 발표했다. 컨퍼런스를 마친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전시장을 탐방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11시에는 연대회의의 참석자들이 동학농민

혁명 국가기념일 행사에 해외 내빈으로 참석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함께 추모 공간에 참배하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 해외 참석자들은 정읍의 전통차 체험을 하고 이날 오후에 열린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참여하며 농민군 복장을 입고 시민들과 함께 511행진에 나섰다.

키아란 맥카시 코크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전봉준 장군의 영웅적인 죽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뮐하우젠의 수잔 빌너 박사는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보며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3년간 이어온 연대회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뮐하우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연대회의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참여한 도시를 정식 회원도시로 등록하는 등 연대회의를 혁명도시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멕시코 농민혁명과 스위스 농민전쟁도 연대회의에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연대회의의 정례화와 발전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협의해 공식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시장은 "내년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미래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 전북, 中 방문 세일즈 행보 마쳐

### 바이오 기업과 2건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 새만금 관광 관련 투자유치 희망 기업과 논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기업유치추진단, 한인비즈니스대회 관계자 직원 20여 명이 일행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출장을 다녀왔다.

6일 출장 첫날 중국 선전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자마자 김관영 지사가 직접 연사로 나서 선전시 관련 기업인들에게 새만금 기업유치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 관광 관련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과도 긴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지명도 있는 바이오 기업과 2건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기업유치추진단 관계자는 전했다.

김 지사는 중국에서 휴대폰과 전자 관련 분야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분사를 방문, 핵심관계자와도 논의 등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서 8일과 9일에는 그간 30년 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우의를 이

어온 장수성에서 쉬룬린 장수성장과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후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개막식을 하는 등 중국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큰 성과를 거두고 난징을 통해 김 도지사 일행은 9일 밤 귀국했다.

김 지사 일행의 중국 방문과 관련 도민들은 "요즈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리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전북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서로 오가는 관광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도지사가 이러한 행보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고자 세계적 유명기업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방중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브리핑한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추경 심사 이어가

### 도 기업유치지원실 · 복지여성보건국 등 7개 실국 대상 "세계한인비즈니스 계기로 전북자치도 홍보 기회 삼아야"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태, 진안)는 지난 10일, 2024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로 기업유치지원실,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등 7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묻고, 임시방편이 아닌 본예산에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해외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4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고,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50% 증액한 것을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행사추진 기관과 도내 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묻고, 세계대회인 만큼 규모를 확대하여 전북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세밀한 계획으로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홍보예산 비중이 큰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기업전시회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 35명의 홍보인력으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홍보 인력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14개 시군과 연계해 도내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누구나 찾는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확정된 국제행사로 이번 추경에 올해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준비기간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과 도내 시군 지자체 홍보관 운영계획에 대해 묻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기업과 지자체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줄 것과 철저한 준비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개최  
지난 11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문화부시장, 정읍시장 등 시군 단체장,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의회 회복위, 고창갯벌 세계 유산지역센터 건립 예정지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4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현지 의정활동으로 고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의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소관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현황보고를 청취하면서 이병철 위원장은 "2026년 세계유산지역센터가 건립되면 우리의 자연유산인 갯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갯벌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 관광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즉각 중단하라"

### 한경봉 군산시의원, "미래 환경 · 안전 포함 사회적 비용 등 연구 · 주민 속의 필요"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추진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4월부터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제안서 제출 마감은 5월 20일, 군산시는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이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대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더는 풀이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먼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간 새만금 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며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현재는 새만금호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어 물 수위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발전과 풍력·조력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지, 공존이 어렵다면, 또는 공존이 불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새로운 연구와 속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성을 넘는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주민들의 속의가 반드시

시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모델은 37가지로 △건설공사 의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자본 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 △지역발전기여금은 최대 150억(20년), 매년 7.5억 규모 등이라며 "2021년 12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년째 운영 성과를 지켜 보고 있는 군산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권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은 태양광사업, 경제적 이익이 없다 건설업체들의 이익과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안겨 준 육상태양광 사업을 군산시민들이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방안 논의

### 최형열 도의원, 전문가단 회의 참석... "도 · 도의회 협업 중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형열 도의원과 참여 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을 비롯한 5명의 마을공동체미디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북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단 현장 컨설팅 강화, △통합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지원에 있어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협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송병철 센터장은 "도농교류와 귀농귀촌, 청년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열 의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은 더 진정한 자치분권 제도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